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이 혜 지

2018년 8월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곽 정 명

이 혜 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이혜지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위 원	_____	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년 6월

A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Jeju
Natural and Culture Experience.

-Focused on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ye-Ji Lee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8. 0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Jung-Myung Kwack, Prof. of Art Education

.....
.....
.....
(Name and signature)

.....
Dat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국문초록>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 연구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이 해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지도교수 곽 정 명

오늘날 미술교육은 삶을 위한 미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다.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쉽게 유발 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에게 ‘삶을 위한 미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체험학습을 이용한다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자연과 사물을 접하며 뛰어난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자전거로 이동하며 직접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미술과 교육과정에 적용시켜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미술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지역사회교육론을 바탕으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하였으며, 체험학습과 미술과 교육과정을 접목시킨 다양한 미술표현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하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자연·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셋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삶 속에서 미술을 통한 사고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한 미술교육 활동은 총 5회기로 진행되었다. 1회기는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활동, 2회기는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전각활동, 3회기는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조형활동, 4회기는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감상활동, 5회기는 ‘꿈을 달리는 자전거’ 선제구성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길 등을 다니며, 제주 자연·문화를 체험하고 관찰함으로써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음으로써 학습공간을 학습자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로 확장시켰다. 셋째, 제주의 바람과 햇빛, 계절에서 느껴지는 자연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 잠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르고 표현할 수 있었다. 넷째, 자신의 삶속에서 미술을 통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 자연·문화유산을 체험을 통하여, 제주지역이 가진 다양한 교육적 소재들을 미술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평면 표현위주의 미술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의 장르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 사회 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한 미술교육 개발과 함께, 미술 교육현장에서 학습자의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8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목 차

국문초록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지역사회교육의 이해	4
2. 제주 자연·문화의 교육적 가치	11
3.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교육	20
III.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 방안	23
1. 교수·학습 계획	23
2. 학습 지도안 및 결과물	27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49
IV. 결 론	51
참고문헌	53
ABSTRACT	56
부록	59

표 목 차

<표 1>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25
<표 2>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학습 지도안	27
<표 3>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학습결과물	31
<표 4>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학습 지도안	32
<표 5>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학습결과물	36
<표 6>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학습 지도안	37
<표 7>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학습결과물	40
<표 8>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학습 지도안	41
<표 9>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학습결과물	44
<표 10> ‘꿈을 달리는 자전거’ 학습 지도안	45
<표 11> ‘꿈을 달리는 자전거’ 학습결과물	48

그림 목 차

<그림 1> 한라산 (백록담)	12
<그림 2> 선흘 곳자왈 숲	12
<그림 3> 탐라순력도 '성산관일' 중 일부	13
<그림 4> 성산일출봉	13
<그림 5> 제주어 서예작품, 고윤형(作)	15
<그림 6> 돌하르방	17
<그림 7> 밭돌담	18
<그림 8> 구좌읍 하도리 원담 '멜튼개'	18
<그림 9> 방사탑	19
<그림 10> 자연에서 채집한 다양한 표현 도구	3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미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삶, 문화 등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녹아들어있는 시각적 표현양식이다. 그래서 미술에는 작가 개인의 감수성이나 사고, 가치,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다. 또한 시대적, 지역적, 환경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나 사상을 반영하고, 그 지역의 생활양식, 과거와 현재, 역사적 사건, 사회적 소통과 담론까지도 이를 통하여 이해 할 수 있다. 이처럼 미술과 삶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오늘날의 미술교육에서도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지역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제한된 미술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에서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은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를 쉽게 유발하며,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을 보다 더 성공적으로 학습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인간의 삶의 모든 장이 교육의 장이며, 이러한 교육과정은 삶의 조건과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그 자체가 학습의 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삶을 위한 미술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 문화에 대한 체험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사회·문화 체험을 적용한 본 연구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험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주 자연·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삶속에서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방안을 탐색 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미술교육활동과 자전거를 이용한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예술문화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학습자가 경험한 다양한 영감을 미술작품으로 표현하며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지역사회교육론을 바탕으로 그 개념과 필요성을 정리하고 제주지역 자연·문화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한 제주 자연·문화의 특성과 이해를 바탕으로 체험중심 미술교육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Ⅲ장에서는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의 실제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을 통한 결과물을 분석하고 기대효과를 살펴보겠다.

Ⅳ장에서는 학습과정안의 결과물을 토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겠다.

본 연구는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도로, 해안도로, 마을길 등을 통하여 도(道) 전역에 걸쳐 자전거를 이용한 체험활동 중심의 미술수업으로 진행하겠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내 꿈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지난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된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 5일 수업제’를 맞이해 전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역문화예술기관, 국공립기관, 도서관, 극단 및 소극장, 해외기관 등과 함께 초·중·고 학생 및 가족을 중심으로 여가문화, 가족 학습문화 창출, 공동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구 수업은 제주도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1~3기에 걸쳐 구성 되었다. 한 기수마다 10명씩 10회기의 수업으로 총 30명, 30회기의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학교 정규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체험학습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먼저,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동부화재

를 통하여 제주시민의 자전거 보험이 일괄 가입되어있어서, 체험학습 전 참가자 전원의 자전거 보험 가입 완료 후 수업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를 위한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한 조사와 실제 교수학습 활동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5개 초등학교 4,5,6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 적용한 체험학습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유산과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셋째, 야외 체험수업으로서 매주 교육현장이 바뀌는 방식으로 진행된 연구로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넷째, 자전거 주행에 관한 체육활동적 교수·학습 방안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미술활동적 교수·학습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지역사회교육의 이해를 위한 이론적 배경과 삶을 위한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의 교육적 활용에 대하여 서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교육의 이해

지역사회교육의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고, 지역사회 교육의 필요성과 목표, 그리고 지역사회 교육을 위한 내용적·방법적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지역사회의 개념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생활공동체를 의미한다. ‘지역사회’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용어를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정의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 중 힐러리, 쿡, 올슨, 맥키버가 주장하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힐러리(George Hillery A., Jr.)

미국의 사회학자 힐러리는 1950년대에 미국 사회과학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정의가 내려진 논문 94편을 분석 하였다. 힐러리는 이를 강조하여 지역사회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의 유대감이 이룩되어 있는 인간집단’¹⁾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결과 ‘지역사회’의 공통된 의미로서

인간집단이 포함되고 있음을 알아내었다.

(2) 쿡 (Lloyd Allen Cook)

미국 지역사회이론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쿡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 사회의 구분을 시도하였다. 쿡은 지역사회를 공동생활의 배경이며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개념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역사회의 개념을 다음의 7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인구의 집합체로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있어야 하며 인구의 동질성이 있어야 한다.
- ② 제한되고 인접된 지역 내에서의 거주하는 주민으로 성립된다.
- ③ 역사적 유산의 공유로서 공통의 경험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역사의 공유를 통하여 지역사회는 공동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 ④ 기본적 봉사기관의 소유기능으로서 학교, 은행, 교회, 시장 등은 지역사회의 봉사기관이다.
- ⑤ 공동생활양식에의 참여로서 지역적 단결로서 우리 의식을 가지게 하는 사회이다.
- ⑥ 통일성의 의식이라는 지역사회의 정신으로서 하나의 집단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통일된 정신을 가진다.
- ⑦ 협동생활의 가능성을 가진 상호 협동사회이다. 2)

즉, 지역사회의 기본요소로서 한정된 지리적 영역의 공동의식을 갖고 있는 주민, 봉사하는 기관, 위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합된 행동 방식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1) Hillery, George A., Jr.(1968), 『Communal Organizations: A Study of Local Societ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374.

2) Lloyd Allen Cook(1950),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pp.261-262.

(3) 올슨(Edward G. Olsen)³⁾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요시 여겼던 후기 진보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 올슨은 지역사회를 일정한 지리적 한계 속에 국한시키려는 태도를 지양하고, 하나의 세계(One World)에 까지 확장·연결시키려는 개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올슨은 지역사회를 향토지역사회(Local community), 지구지역사회(regional community), 국가지역사회(national community), 국제지역사회(international community)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향토지역사회는 학교의 봉사지역, 리, 면, 읍, 군, 시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커뮤니티의 기초가 되는 사회이며 이를 기초로 생활권이 확대 될 수 있다. 지구지역사회는 향토사회에서 확장된 사회이며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도 정도의 지역으로서 지방을 의미한다. 국가지역사회는 국민 전체를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며, 국제지역사회는 하나의 세계로 연결되는 인류의 연대사회이며 공통으로 결합된 국가군⁴⁾이라고 할 수 있다.

(4) 맥키버 (Robert M. MacIver)⁵⁾

맥키버는 지역사회를 부락, 읍, 시, 도, 국가 혹은 더 넓은 지역까지도 포함시켜 공동생활권이라 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기초로서 지역성과 지역사회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의 공동성을 유사성, 사회적 관념, 공통된 전통, 공통된 관습 등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사회의식의 구성요소는 동료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⁶⁾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를 지리적 경계가 아닌 공동체적 특성으로 강조하여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호관계에 의한 공동체 의식을 말한다. 지역은 늘 변화함으로 국가 수준에 의도하는 교육과정과 그 지역이나 학교에서 전개하는 교육과정 간에 괴리를 가능한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올슨(1908-2000), 미국의 진보주의 사회학자로서 ‘지역사회학교’ 운동을 전개하였다. 교과외의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전통적인 학교와 대비하여, 학교가 소속해 있는 지역사회의 발달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학교를 건설하려는 운동을 ‘지역사회학교’ 운동이라고 한다.

4) Edward G.Olsen(1954), 『School and Community』, New York: Prentice-Hall Inc, p.44.

5) 맥키버(1882-1970), 미국의 사회학자로 미국의 사회학이 지나치게 경험주의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고, 방법으로서의 이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커뮤니티(communitiy)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구별하는 사회구조론을 전개하였다. 주요 저서로 『커뮤니티론』, 『정부론』 등이 있다.

6) Robert M., MacIver(1928),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London: Maccillan & co., pp.22-23.

2) 지역사회 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과정상의 규정은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 아래에서 소홀히 되기 쉬운 지역의 특수성을 보완하고, 학교 현장의 자율성, 창의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서 지역사회 교육을 제1차 교육과정령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제시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⁷⁾는 점을 구성 방침으로 삼아 교육과정 지역화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에서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육·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⁸⁾ 지역 교육청은 “지역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⁹⁾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¹⁰⁾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지역화 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이를 고려한 학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중앙집권적 교육은 학생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획일적이거나 수동적,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의 흥미나 능력 차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다. 지역화 학습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식이다. 지역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지역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나 능력에 알맞은 교재와 교구를 선택하여 개별화된 수업을 전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주체적인 학습경험을 통하여 실제생활, 현실문제,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교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7)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별책 1), p.5.

8)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 p.20.

9) 교육과학기술부(2011), 상계서, p.28.

10)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p.15.

교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이며, 이 전문성 속에는 지식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고도의 자율성과 창의성 그리고 봉사정신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¹¹⁾ 교육과정의 개발자로서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고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창조적인 사고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과정을 지역화하면 교사들은 교육과정의 단순한 전달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인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 및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교사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신장되고, 교직의 전문성 확보에도 기여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의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보편적인 지식만을 선정·조직하여 보급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지역사회나 집단·개인 등의 요구나 문제를 수렴하기 어렵다.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교육과정은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상태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적 지체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현상의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차원에서 절실하다.¹²⁾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교육과정을 학교 중심으로 운영하거나 지역화 교육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다.

넷째, 국민의 공동체의식과 애국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

교육과정 지역화의 최종 산출물인 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작성하는 교육부, 이를 학교와 연결시켜주는 지역교육청, 학교의 경영자와 교사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의 협동작업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교육계에 직접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우리지역, 우리학교에 대한 공동체의식과 애착심이 높아진다. 자신의 지역과 학교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협동심으로, 협동심은 애국심으로 연결된다.

다섯째,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용이하게 한다.

지역에는 인적·물적·환경적·문화적으로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있다. 이러한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작

11) 광병선·김재복(1989),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론」, 배영사, p.170.

12) 김재복(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과학연구사, pp.397-398.

용을 하고 사회 또는 주변 환경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직접적으로 돕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특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미술교과는 특히 더 주목되고 있다. 즉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떠한지, 그 지역의 전통문화가 지역의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지역에 어떤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는지 등 다양한 주변 요인에 따라 체험 내용이 전개된다. 또한 학생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역 사회의 회화, 조형, 건축 등 의 미술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지역 사회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¹³⁾ 따라서 학생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실정에 맞는 미술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3) 지역사회 교육의 목표

지역사회 교육은 학생들이 주변의 사회현상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며, 경험을 통하여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¹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여러 요소 즉, 자연환경, 문화, 가치, 태도 등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상호관계, 변천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안목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4) 내용의 지역화와 방법의 지역화

울슨은 그의 저서 「학교와 지역사회(School and Community, 1954)」에서 학교 교육은 좁은 교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사회 속으로 투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지역사회 속으로’의 의

13) 김지영.임춘배(2015), 『제주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초등 5,6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연구』, 한국 초등학교미술교육학회 제 2015-42호, p.184.

14)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p.4.

미는, 교육과정 조직원리 중 ‘지역화의 원리’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내용의 지역화와 방법의 지역화¹⁵⁾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내용의 지역화는 ‘지역’에 대한 학습으로서 지역화(About The Region)이다. 이는 각각의 지역에 분포하는 지리적, 역사적 및 사회적 현상과 사실 자체에 대하여 교수·학습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의 지역화이다. 바꾸어 말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우리 고장, 우리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지역화이다. 이러한 ‘내용의 지역화’는 곧 우리 고장,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고장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고장, 지역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가치 태도의 함양이라는 목적(For the Region)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 방법의 지역화는 ‘지역’에 의해 학습하게 된다는 뜻에서 지역화(By The Region)이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이 교수·학습 하도록 설정해 놓은 내용으로서 어떤 소재를 통하여 지식·이해·기능·가치·태도를 학습하게 된다. 이때 학습자에게 경험적, 심리적으로 가까운 생활 주변, 지역의 사실, 현상, 자원들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방법적 지역화’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술과 교육 과정의 방법적 지역화는 교육과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자원을 도구, 소재로 삼는 경우를 말한다.¹⁶⁾

따라서 학생들의 사회적 생활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내용면으로나 방법적인 유형의 지역사회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사회 교육은 특정 학년이나 단원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통합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사회 교육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지역화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과 관련된 기본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며,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게 될 것이다.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교육인적자원부, p.302.

16) 김오진 외(1998), 「탐라지리교육연구」, 탐라지리교육연구회, pp.10-11.

2. 제주자연·문화의 교육적 가치

국가수준의 교육은 형식에 얽매인 교육과정과 평가, 지역사회와의 비연계성, 획일적 교육과정의 운영 등으로 인해 학습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 교육 받는 대상자가 그 중심에 놓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로의 전환¹⁷⁾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제주지역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교육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인 제주의 자연·문화적 환경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자연유산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지형을 자랑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368개의 오름(소규모 화산체를 뜻하는 제주어), 60여개의 골짜기가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이러한 제주의 자연유산에 대하여 첫째, 생태적가치와 둘째, 경관적 가치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태적 가치

제주도의 면적은 1,848km²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8%에 불과하나,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전체 식물종의 41%에 달하는 1,992종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식물 중 가운데 제주도 특산종이 96종이며, 북방한계 및 남방한계 분포종이 각각 32종과 118종으로 독특한 식물세계를 보인다. 이는 섬 중앙에 높이 1,950m의 한라산이 자리 잡고 있어 고도별로 각기 다른 기후대의 식물이 나타날 뿐 아니라

17) 오세희(2012) 『교육행정의 지역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역할』, 한국 교육개발원 제 2012-4호, p.3.



<그림 1> 한라산 (백록담)



<그림 2> 선흘 꽃자왈 숲

하곡, 습지, 사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혼재하기 때문이다.¹⁸⁾

<그림 1>의 한라산에는 3,000여 종이 넘는 곤충들이 서식하고 있고, 해마다 팔색조와 같은 희귀철새들이 찾아와 보금자리를 튼다. 이와 함께 한라산 전역은 2,000여 마리의 노루가 서식하는 야생의 동물원이다.¹⁹⁾

꽃자왈은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한 ‘꽃’과 토심이 얇은 황무지인 ‘자왈’이 결합된 단어로서 건강한 자연생태가 살아있다. <그림 2>의 꽃자왈은 “화산분출시 점성이 높은 용암이 크고 작은 암괴로 쪼개지면서 분출되어 요철(凹凸)지형을 이루며 쌓여있기 때문에 지하수 함양은 물론, 보온·보습효과를 일으켜 열대식물이 북쪽 한계지점에 자라는 북방한계식물과 한대식물이 남쪽 한계지점에 자라나는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독특한 숲”²⁰⁾이다.

꽃자왈지대는 토양의 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암괴들이 매우 두껍게 쌓여있어 아무리 많은 비가 올 지라도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되어 맑고 깨끗한 제주 지하수의 생성과 보존에 있어서도 그 막중한 역할이 인정되고 있다. 꽃자왈은 한라산에서 중산간을 거쳐 해안선까지 분포함으로써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다.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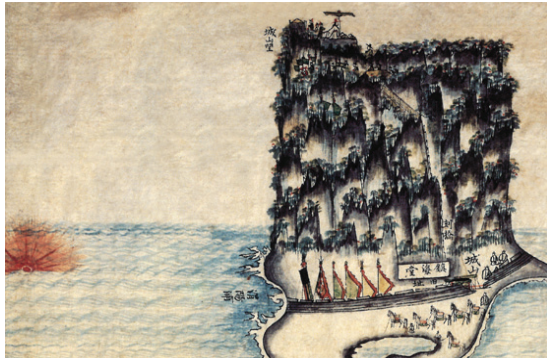
이처럼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생긴 화구나 습지, 해발고도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식생의 변화와 등으로 인하여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보존되고 있다.

18) 김문홍(1994), 『제주의 생태계-제주의 육상식물』,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pp.90-123.

19)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의 상징」, 하나출판, p.15.

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10), 「올레길 문화 역사, 식생 아는 만큼 보인다」, 남도인쇄사, p.171.

21) 상계서, p.173.



<그림 3> 탐라순력도 '성산관일' 중 일부



<그림 4> 성산일출봉

(2) 경관적 가치

제주는 예로부터 풍광이 좋은 곳이 많아 신선이 산다는 영주(瀛洲)라는 별칭이 붙었다. 제주의 뛰어난 경승 10곳을 지칭하는 영주십경(瀛州十景)은 제주의 대표적인 경관이미지다.

제주의 많은 절경 중에서 가장 빼어난 열 곳을 골라 영주십경이라 부르는 것은 신선들이나 즐길 수 있는 탈속한 절경이라는 뜻이다. 또한 이곳을 찾아 노니는 사람들도 신선처럼 세속을 떨리하는 고결한 사람들이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다. 문필에 뛰어난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그려 <그림 3>과 같이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시로 읊어 찬탄하기도 하였다.²²⁾

<그림 4>성산일출봉, 영실, 정방폭포, 산방굴사, 백록담, 사라봉, 방선문 등의 제주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풀나무 숲, 목마장의 말들, 그리고 포구에서 낚시하는 모습 등 제주문화의 풍류와 낭만이 잘 반영되어 있다.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선정된 이런 경관은 아름다운 풍경화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성격도 강하게 띠고 있어서 중요한 문화자원이 된다.

다음은 영주십경의 내용²³⁾이다.

- ① 성산출일(城山出日) : 성산에 올라 아침 해가 솟아오름을 보는 일.
- ② 사봉낙조(紗峰落照) : 사라봉에서 저녁노을을 바라보기.
- ③ 영구춘화(瀛丘春花) : 들렁귀에서 봄날의 꽃구경.

22) 제주특별자치도(2008), 전계서, p.158.

23) 제주특별자치도(2008), 전계서, pp.159-161.

- ④ 정방하폭(正房夏瀑) : 한여름 시원한 정방폭포 구경.
- ⑤ 굴림추색(橘林秋色) : 가을에 익어가는 굴밭의 경치.
- ⑥ 녹담만설(鹿潭晚雪) : 백록담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하얀 눈.
- ⑦ 영실기암(靈室奇岩) : 영실계곡의 기이한 바위들.
- ⑧ 산방굴사(山房窟寺) : 산방산 해식동굴 속의 절간.
- ⑨ 산포조어(山浦釣魚) : 산지포구에서의 고기잡이.
- ⑩ 고수목마(古藪牧馬) : 숲 옆에서 방목하는 말.

이처럼 원시의 생명력이 넘치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풍광은 이제 제주 도민만의 자랑이 아니라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됨으로써 전 세계인들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 제주문화유산

지역사회의 문화란 “음악, 미술, 문학과 같은 예술분야의 현상을 지칭하는 분류적 의미나, 문화국민, 문화인, 문화재 등을 뜻하는 평가적 의미를 넘어서 한 사회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활방식의 전반을 가리키는 서술적 의미”²⁴⁾를 포함하고 있다.

제주도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많다. 예컨대 바람이 많은 섬에서 그 바람을 이겨내려는 지혜의 산물인 초가집이 있고, 바다와 목숨을 걸고 싸우며 해산물을 채취하는 줌너들의 생활문화도 있다. 제주도 특유의 곳과 부락신앙이나, 제주사람들의 삶과 같이 이어온 독특한 민요나 설화, 세시풍속 등이 있다.

이 중 필자는 특히 주목해야 할 만한 것으로 제주어와 돌문화를 선택하였다. 제주어는 제주도라는 지역적·자연적 환경과 또 그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역사와 문화의 숨결을 살펴볼 수 있다.

돌문화는 또한 현대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인의 오랜 역사적 조형물로서 제주사람들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김은석 외(2010), 「지역과 사회과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p.11.

(1) 제주어

‘제주어’는 행정구역상 추자도와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제주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용해 온 모어(母語, mother tongue)를 뜻하며, ‘제줏말²⁵⁾’ 또는 ‘제주어’라 한다. 이러한 제주어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 가치이다.

‘제주어’는 제주 지역 전역에서 쓰는 제주인의 언어로, <그림 5>



<그림 5> 제주어 서예작품, 고윤형(作)

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제주 사람의 삶과 문화가 응축되어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제주도의 오늘을 있게 만든 선인들의 숨결과 맥박이 꿈틀거리고 있는, 가장 제주도다운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가진 귀중한 자산이다. 이를테면, 제주도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는 토속적인 공연물의 경우, 표준어로 구연(口演)하느냐, 제주어로 구연하느냐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의의와 감흥이 무척 달라진다. 이와같이 제주도만이 갖는 특유의 문화적 원형상징(原形象徵)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토속어로 구현되어야 하며, 그래야 실감나고 지역의 현장성이라는 진가가 드러날 수 있다.²⁶⁾ 가장 지역적인 것이 그 나라의 특성에 직결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독자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려 볼 때 제주어가 갖는 문화적 의의와 가치는 크다.

둘째, 어학적 가치이다.

제주어는 평안방언, 함경방언, 경기방언, 전라방언, 경상방언과 함께 국어의 여섯 개의 대방언권에 속한다. 이는 제주방언이 그만큼 독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주어는 현대국어인 표준어뿐만 아니라, 없어져버린 고어(古語)들도 상

25) 고동호 외(2015), 「제줏말의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p.1.

26) 고재환(2017), 「제주어나들이」, 보고서, p.12.

당수가 보존돼 있다.

지금의 제주어는 오랜 시간을 걸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고려시대 제주에는 100년 이상 몽고의 지배를 받았다. 이로 인해 몽고의 침략은 식습관, 남녀의 의복, 사회의 변화, 언어의 변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시대의 유배문화 또한 제주어가 타 언어와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으로 제주어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사건은 출국금지령(出國禁止令)이다. 왜구의 침입에 대항한 자체 방어력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출국금지령(1629-1830)으로 200년 동안 외부지역으로 제주도서민이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폐쇄적인 생활이 강요되었다.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일어난 일본어 몰입교육도 제주어의 언어적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²⁷⁾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의해 형성된 제주어는 아직까지도 국내 어느 방언보다 희귀한 존재로 인정되고 국어학사상 가장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ㄹ 모음과 반치음을 비롯해, 15세기 훈민정음 반포당시의 중세국어인 고어와 그 변천과정의 어형을 가진 말들이 지금도 노년층에서 쓰여지고 있음²⁸⁾이 그것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이다.

사고가 언어라는 말이 있듯이 제주어 역시 제주인의 사고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라 할 수 있다. 제주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사고와 감정 체계가 제주어 속에 녹아 제주인의 정체성을 지켜온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제주어를 대신하여 표준어가 널리 쓰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모르더라도 큰 지장이 없게 되어 60대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제외하곤 일상생활에서 제주어를 사용하는 세대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어’는 2010년 유네스코의 ‘소멸 위기의 언어’ 5단계 중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는 세대 간 소통의 단절이며, 제주인의 삶이 응축된 문화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언어유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27) 양창용(2014), 『Jejueo: History and Attitudes』, 세계한국학대회 제 7회 panel 26, pp.1-5.

28) 고재환(2017), 전게서, pp.12-15.

모든 생물이 생태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생활방식을 가진 공동체 문화의 일부분을 잃는 것이다. 제주방언의 보존은 제주인들의 삶과 문화, 역사를 지켜내는 것이며, 제주인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2) 돌문화

제주도는 화산섬인 관계로, 섬이 온통 돌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에 왔던 목민관이나 유배인들은 어느 곳 보다는 돌이 많고 이로 인해 여러 고충이 많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경작을 위한 밭 갈기나 해안에 배를 근접하기가 어려운 것이 과거에는 큰 고민거리였다.²⁹⁾ 그러나 지금의 제주 돌문화는 고통스런 자연환경을 아름다운 문화로 승화시킨 제주도민들의 노력과 슬기가 돋보이는 문화유산이며, 그 가치가 높다.

이러한 돌문화의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적 가치가 있다.

제주 돌문화는 돌하르방과 동자석, 동자복, 서자복과 같은 다양한 석상문화가 있다.

<그림 6>의 돌하르방은 성안의 수호신적, 금표적 상징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제주의 조각품이다. 돌하르방의 미술적 가치는 일찍이 인정받아 1971



<그림 6> 돌하르방

년 8월 26일 제주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보호하게 되었다. 그 후 전국적으로 알려져 제주도 민속예술품으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점유하게 되었다.³⁰⁾ 부리부리한 왕방울 눈, 주먹코, 한쪽 어깨를 치켜 올린 다소 어줍잖은 모습의 과격적인 해학성을 가진 돌하르방은 외세의 온갖 침탈과 자연의 재해에도 굴함 없이 싸워 온 섬사람들의 투박한 모습³¹⁾을 지니고 있다.

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10), 전계서, p.220.

30) 제주특별자치도(2008), 전계서, p.444.

돌하르방과 더불어 중요한 석상으로 무덤 앞에 놓이는 동자석(童子石)을 들 수 있다. 동자석은 망자의 넋을 지켜주는 무덤의 지킴이로 그 예술적 가치가 매우 우수하다. 아담하면서도 다부지고, 소박하면서도 멋진 모습은 제주 장묘문화의 특징적 상징물이며 중요한 생활예술품³²⁾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림 7> 발돌담



<그림 8> 구좌읍 하도리 원담 ‘멜튼개’

둘째, 생산적 가치를 가졌다.

제주의 어디를 가나 <그림7>과 같이 현무암으로 쌓인 돌담을 볼 수 있다. 제주도민들은 바람이 강한 섬의 특징을 고려하여 돌담의 구멍을 막지 않고 쌓았다. 바람이 통하게 함으로써 강풍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옥의 외벽에 쌓은 축담, 집의 울타리로 쌓은 울담, 마을길과 집을 이어주는 골목인 울레에 쌓은 올렛담, 방풍을 위해 밭에 쌓은 밭담, 경계구분을 위해 목마장에 쌓았던 잣담, 심지어 무덤에도 쌓았다.

돌담을 세우는 장소나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돌담이 문화 발전을 거듭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완벽한 돌담문화로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공공적 가치가 있다.

원(垣)은 해변 조간대의 만(灣)을 이루는 곳에 돌담을 쌓아놓고 밀물에 따라 물려든 물고기들을 썰물이 나면 그 안에 잡아 가둬 쉽게 어획 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을 말한다. 이를 제주에서는 ‘원담’, ‘갯담’이라고 한다.³³⁾ 제주도는 특히 이 원담이 발달하여 <그림 8>과 같이 마을마다 원담이 설치되어 있다. 바다가 주는 혜택을 마

31) 고창훈 외(1994), 「우리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p.90.

32) 제주특별자치도(2008), 전계서, p.50.

33) 상계서, p.290.

을 사람에게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지혜와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 밖에 공공성을 띄는 석조물로는 방어시설과 같은 관방유적들이 있다. 제주의 성곽, 3성 9진, 25봉수, 38연대의 모든 축조물들이 화산석으로 빚어졌다.

넷째, 종교적 가치를 가졌다.

방사탑은 마을의 기운이 허한 방 위에 돌을 쌓아 부정한 기운을 막 았던 돌탑이다. 마을에 따라서 거 옥대, 거옥, 거왁, 극대, 가마귀돌 이라고 부른다. <그림 9>의방사탑 은 마을에 불길한 징조가 비치거 나 허한 방향에 세우면 액운을 쫓 아 준다는 풍수지리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액막이, 마을의 안



<그림 9> 방사탑

녕과 수호, 전염병의 예방, 화재 예방, 해상의 안전, 아이를 아무 탈 없이 키워주 는 기능 등을 갖고 있다. 다른 지방의 탑문화나 장승, 솟대와 유사한 신앙적의미 를 지닌다.³⁴⁾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의 문화유산은 돌이 많은 자연적 조건에서 비롯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돌문화가 탄생하였다. 제주도의 돌문화가 오랜 세월동안 지속 되며 발전 할 수 있었던 근본적 배경은, 자연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어렵고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지혜의 발로에서 비롯되었다. 이런 돌문화는 '제주다움'을 만들어내는 상징이므로 길이 보존되어야 할 문화적 자산 이다.

이처럼 제주어와 제주 돌문화는 제주도라는 지역적·자연적 환경에 따라 제주 고유의 정서와 독특한 미감, 역사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3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한눈에 알아보는 제주의 문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p.58.

3. 제주 자연·문화 체험의 미술교육

앞서 살펴보았던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제주 고유의 삶의 모습 등을 미술교육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히 훌륭하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생동감을 느끼고 자연·문화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것이다. 체험활동은 삶의 전체 과정을 이해시키는 노력이며 생활 속의 활동 및 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다. 체험을 통한 지역사회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면,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우리 지역 제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며 자연스럽게 현재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방법으로 크러그와 파커(Don, H, Krug³⁵) & Ann, Parker³⁶)가 제시하는 문화탐구의 요소를 살펴보겠다. 크러그와 파커는 모두 초등학교 예술교사로서 위스콘신 대학의 대학원에 다니면서 만났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함께 도시, 농촌, 작은 마을 등 위스콘신 주 전역을 여행을 하기 시작하였고,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다. 크러그와 파커는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예술대학에서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예술가들 보다, 그 외 비주류의 예술가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들과의 대화를 기록하며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 관심사들이 예술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화와 지역사회예술을 배우는 데 중요한 네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직접적인 경험(Direct experiences).

직접적인 경험은 학습자를 구체적인 교육적 상황에 데려오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마주하는 물리적인 상태와 사회적인 현상이 상호작용한 결과다. 실제 경험을 반영

35) 크러그(1957-2017),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그는 미술 교육, 시각 예술, 민속 문화, 지역사회 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또한 디지털 학습 및 커리큘럼(DLC)을 통하여 기술 분야의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2000-2001년에는 풀브라이트 학자 상을 수상하였다.

36) 파커(1969- ?), 미술 교사이자 조각가,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미국의 전통적 정원예술에서 착안하여 실물 크기의 콘크리트 모자이크조각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 않는 이론들은 제한적이다.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예술, 공예품, 상업적 매체, 또는 그 외의 놓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실천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

둘째, 관찰과 성찰(Observations and reflections).

크러그와 파커가 여행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학교교육을 통한 공식적인 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가풍이나 민족에 따른 예술적 기호를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비공식적으로 배운 사람들이다. 나머지 부류는 어떠한 학문적 예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크러그와 파커는 예술을 배운 사람들과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지역 공동체로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며, 예술, 미학,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관찰하고 서로의 의견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정립하고 이를 통하여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셋째, 심사숙고와 대화(Deliberation and dialogue).

학생들은 경험하고 관찰 한 것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고 대화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심사숙고와 대화는 한 개인의 경험과 관찰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책, 인터넷 등 과 같은 다양한 정보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점검하고 그들의 관점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일기쓰기는 예술, 미학,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언어적 표현력 또한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협업활동(Collaborative actions).

협업활동에는 역사적, 현대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에는 문제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행할 수 있는 경로를 함께 지정하고 협력해야 한다. 동료들과 공동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논의하는 과정은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며 보다 의미 있는 교육적 결과를 이끈다. 37)

37) Krug, D. H., & Parker, A.(2009), 『A Journal of Critical Inquiry and Professional Learning: Telling Tales of Community, Art, Aesthetics, and Cultures.』,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pp.33-40.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제주 자연·문화에 대한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이룰 수 있다.

예컨대 제주도를 지칭하는 말 중 삼다도(三多島)가 있다. 돌, 여자, 바람이 많다는 지식을 학습시킬 때,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학습자가 바람을 맞으며 돌담을 따라 걷고, 해변에서 돌을 줍고, 돌을 물에 띄워보기도 하고 겹겹이 쌓아 본다면 단순히 돌과 바람이 많다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학습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여행을 하기 위하여 만나게 되는 동료들은 각각 다른 학교의 소속이고, 학년 또한 다양하며 성장속도에 따라 키 차이가 크고 체력도 다르다. 자전거로 이동하는 체험 현장에서 앞서가는 학생들과 뒤처지는 학생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학생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몇 차례씩 달리는 순서를 다시 조율하며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공감을 높이고 더 다양한 시각을 넓힐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만이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식도 함양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경험하고 관찰 한 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공유하고 분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월정리 해변에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신경 쓰지 않는 학생, 자신도 함께 쓰레기를 주워 담는 학생, 어떤 학생은 이를 계기로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개인물통을 사용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관점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

체험 학습에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자전거로 주행을 하다 소나기가 쏟아질 때, 학생들은 비를 맞으며 목적지까지 갈 것인지, 우회를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감능력도 향상되어 성숙한 인격을 지니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체험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지역사회 미술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학습자의 삶과 연결되어 더 깊이 있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다.

Ⅲ. 제주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지도 방안

본 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주 지역의 자연·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 활동중심의 미술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주의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을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적·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미술수업의 결과물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수·학습 계획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를 이해하고 학습자가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술활동과 자전거라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접목하였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교육을 하고자 한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제주환상자전거길’과 마을길, 올레길은 다양한 미술활동의 영감을 얻고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한 최적지이다. 자전거를 타고 제주 곳곳의 마을길을 체험하는 활동은, 몸과 마음의 휴식과 균형을 가져다주고, 제주의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교육은 일상생활의 친숙한 경험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표현활동을 통하여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르하고자 한다.

1) 교수목표

첫째, 체험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둘째, 제주 자연·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삶속에서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방안을 탐색 할 수 있다.

2) 교수방법

본 연구는 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자전거도로, 해안도로, 마을길 등을 통하여 도 전역에 걸쳐 체험활동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연구 수업은 제주도 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2017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1~3기에 걸쳐 구성 되었다. 한 기수마다 10명씩 10회기의 수업으로 총 30명, 30회기의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 중 제주 자연·문화를 주제로 한 미술수업은 5회기씩 총 15회기로 진행되었다.) 정규적인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자연 환경과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이 없는 토요일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체험활동을 위한 주된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로 ‘제주환상 자전거길’을 따라 자동차로는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숨은 길을 경험하게 하고, 출발지점으로 올 때와 집으로 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매주 끝났던 장소에서 다시 모여 다음 목적지를 향해 자전거 주행을 하였으나, 학습자의 체력이나, 날씨, 기상의 영향에 따라 주행거리나 코스에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완주보다는 체험을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전체적인 동선은 제주시 탐통에서부터 출발하여 이호-애월-한림-대정-중문-서귀포-표선-성산-세화-함덕을 거쳐 탐동으로 들어오는 코스를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출발지점에서 시작하여 3시간~5시간 정도 자전거 주행을 하며 자동차로는 볼 수 없었던 제주의 숨은 길을 경험하게 하고 이동을 하며, 그들이 있는 장소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나오면 그 곳에서 미술수업을 진행하였다.

3) 학습계획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연계한 자전거 여행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주지역이 가진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수업은 예술적, 창의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미술활동이 되기 위해, 역사, 환경, 문화를 생각하는 주제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 제안하는 미술 교수·학습계획은 5차시로 학습 과정안을 계획하였고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시별 교수·학습 계획		
차시	학습주제	학습내용
1	‘제주어’ (캘리그래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의 소중함 ■ 제주어를 통한 제주의 문화 이해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제주어로 캘리그래피 쓰기
2	‘제주의 상징’ (전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고유의 특징과 아름다움 발견 ■ 제주를 상징하는 이미지 디자인 ■ 전각기법을 이용한 지우개 스탬프 제작
3	‘돌 문화’ (자연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돌의 특징과 문화 이해 ■ 자연 속에서 찾은 다양한 돌의 조형원리 이해
4	‘역사’ (감상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현장에서 체험 ■ 제주의 아픈 역사를 이해 ■ 토론을 통한 반성과 성찰
5	‘제주 길’ (선제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길과 풍경 체험 ■ 와이어 선제구성을 통하여 개성 있는 자전거 표현

위 <표 1>과 같이 제주도 자연·문화를 적용한 미술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자연과 주변 환경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예술적 요소에 기초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사물, 다양한 예술작품 등을 감상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1차시,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는 제주어에 대하여 친근감을 느끼고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요소를 발견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물 각각의 다양한 속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시각적·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2차시, ‘내가 디자인하는 올레 스탬프’는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양각과 음각, 양음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여러 가지 모양과 도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형태에 대한 구상능력을 키울 수 있다.

3차시,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수업은, 자연물이 가지는 각각의 고유한 색깔, 모양, 재질을 구분하고, 공간, 부분과 전체, 분석과 통합 등의 조형요소를 고려하여 표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이디어를 반영시켜 구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3차원의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개념, 동세, 균형감, 움직임, 대칭성 등의 개념도 익히게 된다.

4차시,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수업은, 비극적 역사의 흔적과, 미술작품을 통하여 제주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파악하고,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배경과 관련지어 해석하며 비평적 사고를 키울 수 있다.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삶과 미술과 사회를 연결하여 사고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5차시, ‘꿈을 달리는 자전거’ 수업은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느낌과 생각, 의도에 맞게 조형 요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미술과 자신을 관련짓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수업은 학생들에게 제주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하여 쉽게 지역사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창조적이고 다양한 미술표현활동을 전개하며 자신의 삶을 통한 미적 참여 방안을 탐구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2. 학습 지도안 및 결과물

본 절에서는 제주도의 자연·문화의 요소 중 언어, 자연, 돌하르방, 역사, 제주의 길을 소재로 선택하여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한 미술과 학습지도안을 구상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물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학습 목표	1. 제주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2. 제주어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3. 다양한 표현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캘리그래피를 쓸 수 있다.	
학습 장소	남원- 표선 구간 (남태해안로) (남원포구, 제주올레 안내소 주변)	
학습 자료	교사	유인물(제주어 관련 자료), 아이디어 구상지, 쉼트지, 먹물, 물통, 접시
	학생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나뭇가지, 야자나무 껍질, 갈대, 나뭇잎, 풀잎, 풀뿌리, 솔방울 등)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자료■/유의점□
도입 (10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기유발 제주어에 대한 자료가 담긴 유인물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인물 자료 I

예) 제시된 이미지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병아리(빙애기)/ □□채소(송키)

□□□□-머리카락(허운데기) / □□-춡다(얼다)

□□-감자(지슬)/□-뻬(짱)/ □□-쌀밥(곤밥) 등

제주어와 표준어의 음절이 맞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제주어로 빈칸을 채웠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지 질문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지명을 이야기 해 보며, 그 지명의 유래를 살펴본다. 제주생활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제주어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할머니들과 소통을 할 때, 언어장벽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 언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습 주제 및 목표 확인하기

■ 제시하는 이미지는 사투리와 표준어 음절이 같은 것이 좋다

■ 제주 지명의 예 (웃뜨르, 알뜨르, 산굼부리, 돈내코, 모슬포, 먹돌새기, 뽕낭굴왓 등)

	<p>■ 활동 순서 확인하기</p> <p>[활동1] 남원- 표선 구간을 주행 하는 중에 남원포구 주변에서 준비된 유인물을 보며, 제주어로 된 동화를 실감나게 읽어보기.</p> <p>[활동2] 남원포구와 주위 공원을 탐색하여 자연 속에서 붓 대신 사용 할 재료를 찾아오기.</p> <p>[활동3] 제주어를 사용하여 캘리그래피를 써보기.</p>	<p>■ 유인물 자료Ⅱ</p> <p>제주어 동화 '뚝끼광 거북이(토끼와 거북이) -출처: 신금이(易)</p>
<p>전개 (50분)</p>	<p>■ [활동 1] 준비된 유인물을 보며, 제주어로 된 동화를 실감나게 읽어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어 동화 '뚝끼광 거북이'를 읽어보기. ● 누가 제주어를 실감나게 했나요? ● 의미전달은 잘 되었나요? ●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사나 시를 제주어로 바꿔본다면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p>■ [활동 2] 주위를 탐색하여 자연 속에서 재료를 찾아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분 동안, 주변을 돌아보며 나뭇가지, 솔방울, 마른풀잎, 돌맹이 등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도구를 찾아온다. 	<p>□ 범위를 정하여 읽을 부분을 정해주고, 함께 동화를 실감나게 읽는다.</p> <p>□ 가시가 있거나 위험해 보이는 재료는 지양하도록 한다</p>

▣ [활동 3] 다양한 표현 도구를 이용하여 ‘제주어’를 사용한 캘리그래피를 써보기.



<그림 10> 자연에서 채집한 다양한 표현 도구.

-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캘리그래피를 쓴다.
- 각각의 도구가 주는 느낌을 비교해본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 재료가 주는 다양한 느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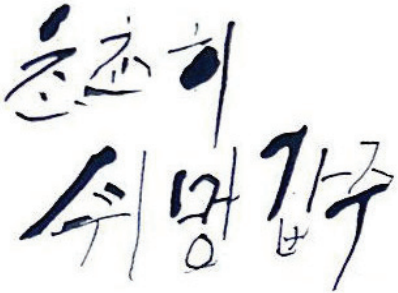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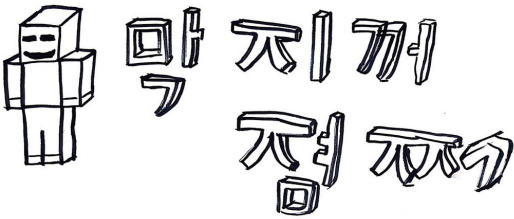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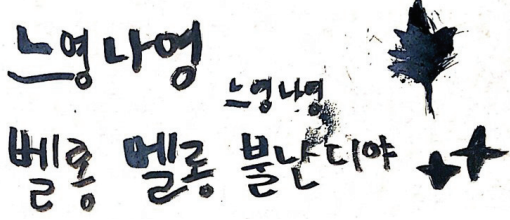
□ 순회 지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

정리
(10분)

-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다음차시 예고.
- 주변정리 및 인사

□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고 칭찬한다.

<표 3>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학습결과물

 <p>츤츤히 쉬멍 갑주.(천천히 쉬면서 가자.)</p>	<p>야자나무 껍데기를 이용하였다. 천천히 쉬어 간다는 글의 뜻처럼, 점을 찍고 획을 긋는 데서 여유로움이 느껴지고, 기울어진 글씨체가 멋스럽게 표현되었다.</p>
 <p>막 지꺼점짜.(정말 기분 좋다.)</p>	<p>얇은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성냥개비를 배열한 듯 입체 효과를 주었다. '차렷'자세의 딱딱한 로봇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길게 늘어진 입꼬리에서 해학이 느껴진다.</p>
 <p>맨도롱 딱뚝.(기분 좋게 따뜻한)</p>	<p>세 갈래로 갈라져 있는 풀을 이용하여 붓으로 쓰는 것 같은 효과를 주었다. 운필이 자유롭고, 과감한 크기변화를 통하여 리듬을 느낄 수 있다.</p>
 <p>느영 나영, 벨롱 벨롱 불난디아 (너랑 나랑, 반짝 반짝 빛난다.)</p>	<p>돌맹이로 글씨를 써서 획의 굵기가 일정하다. 두 번씩 반복된 글자와 실물 찍기 기법을 이용한 나뭇잎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는다.</p>

<표 4>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학습 목표	1. 제주 고유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발견 할 수 있다. 2. 제주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특징과 개성을 살려 디자인할 수 있다. 3. 전각기법의 올바른 제작 방법을 숙지하고 순서에 맞게 제작 할 수 있다.	
학습 장소	탐동-이호 구간 (이호해변길) (이호해수욕장)	
학습 자료	교사	유인물(전각의 특징 자료), 아이디어 구상지, 점보지우개, 조각도, 인주, 캔트지
	학생	필기도구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자료■/유의점□
도입 (10분)	<p>■ 동기유발</p> <p>26개의 ‘제주 올레길 코스’에는 각각의 지점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담은 스탬프가 설치되어 있다. 이 스탬프 이미지를 보며 어디를, 혹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맞춰보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p> <p>● 제주 올레길을 가 본적 있나요? 제주에 살면서 가 본 곳 중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어디인가요?</p>	<p>■ 제주올레스탬프 이미지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사는 동네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p>■ 학습주제 및 목표 확인하기</p> <p>■ 활동 순서 확인하기</p> <p>[활동1] 전각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기.</p> <p>[활동2] 아이디어 스케치.</p> <p>[활동3] 점보지우개에 스케치를 하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p>	
<p>전개 (50분)</p>	<p>■ [활동 1] 전각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각, 양각, 음양각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 전각의 제작 방법과 순서를 이해하기. • 전각을 종이에 찍어 나타낼 때 좌우가 바뀌는 점 등 전각의 특징을 이해하기. • 조각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p>□ 전각을 종이에 찍어낼 때 좌우가 바뀌는 점을 유의하여, 글자를 세길 때처럼 좌우가 중요한 이미지는 거꾸로 세길 수 있도록 한다.</p>

■ [활동 2] 아이디어 스케치.

- 관광명소, 동식물, 문화, 자연환경 등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마인드맵 한다.
- 활용하고 싶은 이미지나 단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주제가 더 잘 드러날 수 있을지 생각하며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햇빛 등을 나타낼 때에는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
- 삼다도(三多島)라 불리는 제주의 특징을 이야기 해보고 새롭게 꼽을 수 있는 삼다를 뽑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 [활동 3] 점보지우개에 스케치를 하고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 조각도를 사용하여 지우개를 파낼 때에는 깔끔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파내는 방향과 선의 굵기, 간격, 속도 등을 염두 하였을 때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한다.

□ 지역, 문화, 특산물, 식물, 동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조각도를 사용할 때 칼이 나가는 방향 앞에 손을 두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케치가 틀려도 칼로 도려내지 않은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중간 과정을 인주로 찍어내어 확인하며 자유롭게 수정하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고를 거울에 비춰보며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도 용이하다. <input type="checkbox"/> 순회 지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
<p>정리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고,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이야기 한다. •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다음차시 예고. • 주변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고 칭찬한다.

<표 5> ‘내가 디자인 하는 올레 스탬프’ 학습결과물

지우개 전각	종이에 찍은 결과물	내용설명
		<p>제주 이호테우 해변을 상징하는 붉은 말 등대를 형상화하였다. 네모난 등대의 모습과 배경에 드러난 납작칼 무늬가 조화롭게 느껴진다.</p>
		<p>세모칼을 사용하여 오름을 나타냈다. ‘오름’이라는 이름과 ‘오르고 내리고’라는 표현에서 운율이 느껴진다.</p>
		<p>제주도를 상징하는 돌하르방이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의 질감 표현을 잘 나타내었고, 배경의 가로줄이 바람을 연상시켜 인상적이다.</p>
		<p>한라산이 돋보이는 제주도 모습이다. ‘jeju’라는 글자를 변형해 하트 눈에 웃고 있는 표정으로 캐릭터화하였다.</p>

<표 6>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학습 목표	1. 제주 돌하르방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2. 자연 속에서 다양한 모양과 질감의 돌맹이를 통하여 조형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 장소	한림-고산 구간 (수월봉 근처)	
학습 자료	교사	크레 파스
	학생	바닷가에서 얻을 수 있는 돌과 재료(돌맹이, 조개껍데기, 마른 해초 등등)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유의점 <input type="checkbox"/>
도입 (10분)	<p>▣ 동기유발</p> <p>예) 돌하르방은 제주도 전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돌하르방을 본 경험을 이야기 하며 옛날 제주사람들은 왜 돌하르방을 만들었는지 질문을 통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봤던 돌하르방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흉내내보고 떠올려본다. • 돌하르방의 모습과 크기가 다 똑같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하르방의 이미지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이야기 해 본다. ● 내가 새롭게 돌하르방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p>■ 학습주제 및 목표하기</p> <p>■ 활동 순서 확인하기</p> <p>[활동1] 고산 해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멩이를 수집하기 (그 외 다른 자연물에도 흥미 가지기)</p> <p>[활동2] 개성 있고 위트 있는 나만의 돌하르방을 연출해 보기.</p>	<p>■ 돌하르방 열쇠고리, 칠성통에 있는 모자를 쓴 돌하르방, 관덕정 돌하르방 등등</p>
<p>전개 (50분)</p>	<p>■ [활동 1] 바닷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돌멩이를 수집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연상하고 상상해 본다. ● 친구들과 협동하여 재료를 구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 자연물 고유의 모양과 질감, 무게 등을 직접 체감한다. ●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기. 	<p>□ 자유롭게 채집을 하되, 너무 멀리거나 위험한 곳은 가지 않도록 한다.</p>

	<p>▣ [활동 2] 개성 있고 위트 있는 나만의 돌하르방을 연출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공유 한다. • 나를 닮은 모습, 가족을 닮은 모습 등 주변의 인물을 관찰하고 조형적 요소를 탐색한다. • 다양한 형태의 돌을 쌓거나 늘어뜨려 조형물을 구성한다. • 창의적으로 상상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며 적극적으로 표현해본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재료가 주는 다양한 느낌을 체험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input type="checkbox"/> 순회 지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
<p>정리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재미있거나 인상 깊은 점 등 느낀 점을 발표한다. •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보관할 수 없는 작품일 경우 사진으로 남긴다. • 다음차시 예고. • 주변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고 칭찬한다.

<표 7>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 학습결과물



돌하르방은 제주의 수호신이다. 항상 자신을 생각해주는 엄마가 자신만의 돌하르방 수호신이라고 생각했다.



잠잘 때 좋은 꿈만 꾸게 해준다는 토끼돌하르방이다. 접혀있는 듯 한 양쪽 귀와, 지그시 감은 눈이 편안함을 준다.



두개의 돌을 같이 두었을 때 입 맞춤을 하는 것 같아서 옆모습으로 표현했다. 뽀뽀하는 엄마아빠돌하르방.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 돌하르방이다. 부채꼴모양의 돌이 치마를 연상시켰고 해초를 이용해 프릴장식을 하였다.

<표 8>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학습 목표	1. 알뜨르 비행장을 견학하고 제주의 아픈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2. 잊혀지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다.	
학습 장소	대정-사계 구간 (알뜨르 비행장, 산방산 진지동굴)	
학습 자료	교사	리본, 매직, 가위
	학생	필기도구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자료■/유의점□
도입 (10분)	<p>■ 동기유발</p> <p>제주 알뜨르 비행장을 견학하여 제로센 비행기를 본뜬 작품인 박경훈 작가의 ‘애국기 매국기’를 보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왜 이 작품이 있는지 이야기 해 본다.</p> <p>● 애국기 매국기라는 제목이 왜 붙여졌을지 질문하며 동기를 유발시킨다.</p>	<p>■ 박경훈 작가의 ‘애국기 매국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났던 곳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기 위하여 떠나는 여행을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한다. 평화의 섬이라고 불리는 제주도이지만 4.3평화 공원, 알뜨르 비행장 등은 대표적인 다크투어리즘 장소이다. <p>■ 학습주제 및 목표 확인하기</p> <p>■ 활동 순서 확인하기</p> <p>[활동1] 격납고 주변을 돌아보며 잊혀져가는 것들에 대한 주제를 탐색하고 토론하기.</p> <p>[활동2]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새기고 노란 리본 달기.</p>	<p>■ 알뜨르 비행장은 2017년 제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다른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p>
<p>전개 (50분)</p>	<p>■ [활동1] 격납고 주변을 돌아보며 잊혀져가는 아픈 역사에 대한 주제를 탐색하고 토론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아픈 역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p>□ 너무 먼 과거보다는 세월호, 천안함 등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면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뜨르 비행장은 징용과 전쟁, 학살의 흔적을 품은 장소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주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밭농사를 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조금씩 그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 이처럼 조금씩 잊혀가고 있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도록 한다. <p>▣ [활동2]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새기고 리본 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 이런 아픔이 반복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 떠오르는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말하고 공감하기. 	<p>□ 감정에 앞서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복수심을 가지지 않도록 유의한다.</p>
<p>정리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본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경청한다. ● 다음차시 예고. ● 주변정리 및 인사 	

<표 9>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학습결과물



간결하지만 먹먹한 여운을
담아 리본을 달았다.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편지를 적어 보내는 마음으
로 조용히 리본을 달았다.



2017년 4월에 처음 리본을
다는 수업을 했을 때의 모
습이다. 리본의 길이는 제각
각 이지만 진지한 자세로
역사의 아픔을 되돌아보았
다.



2017년 9월에 또 다시 리본
달기를 하러 갔을 때의 사
진이다. 이때는 제주비엔날
레가 시작되며 많은 사람들
이 이어서 리본달기에 동참
하였다.

<표 10> ‘꿈을 달리는 자전거’ 학습 지도안

학습 주제	꿈을 달리는 자전거 만들기	
학습 목표	1.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통하여 제주의 길과 풍경을 알 수 있다. 2. 와이어 선체구성을 통하여 나만의 개성있는 자전거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 장소	김녕-조천 구간 조함해안로 (함덕 서우봉 해변)	
학습 자료	교사	와이어 (1mm, 3mm, 5mm), 가위, 휴지심, 니퍼
	학생	장갑
학습 단계	교수 · 학습 과정	자료 및 유의점 자료■/유의점□
도입 (10분)	<p>■ 동기유발</p> <p>체험 학습을 하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을 떠올려보도록 한다.</p> <p>평소에 버스나 차로 가보지 못했던 길을 주행하며 오르막 내리막 힘들기도 하고, 헤매기도 했던 경험 등을 이야기 한다.</p> <p>제주도 해안을 따라 자전거미술여행을 한 학생들에게, 체험이라는 것을 형상화하여 와이어로 자전거를 제작하도록 한다.</p>	<p>□ 참여자 모두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자전거로 제주 미술 여행을 할 때와 마지막을 앞둔 지금을 비교하면 기분이 어때요? ● 자전거 미술여행을 하며 좋았던 추억을 떠올리며 앞으로 어떤 꿈과 도전에 도약하고 싶은지 소망과 염원을 담아 자전거를 만들어 보아요. <p>■ 학습주제 및 목표 확인하기</p> <p>■ 활동 순서 확인하기</p> <p>[활동1] 제주 미술 여행을 하며 배우게 된 점이나 느낀 소감을 말해본다.</p> <p>[활동2] 제주도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을 떠올리며 와이어 선제구성을 통한 나만의 자전거를 만들기.</p>	
<p>전개 (50분)</p>	<p>■ [활동 1] 제주 미술 여행을 하며 배우게 된 점이나 느낀 소감을 말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길이나, 바다,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한다. 	

	<p>▣ [활동 2] 제주 한 바퀴를 돌았던 것을 떠올리며 와이어 선제구성을 통한 나만의 자전거를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굵기의 와이어를 사용한다. • 와이어로 원을 만들 때에는 휴지심에 감아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한다. • 원근법을 이용하여 내가 만든 자전거를 탄 것 같은 사진을 찍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와이어를 절단한 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input type="checkbox"/> 순회 지도를 하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도와준다.
<p>정리 (10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수업을 통하여 느낀 점을 이야기 한다. • 다른 학생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느낀 점을 공유한다. • 주변정리 및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다른 사람의 발표를 경청하고 칭찬한다.

<표 11> ‘꿈을 달리는 자전거’ 학습결과물



두꺼운 와이어로 바퀴를 만들고 가는 와이어로 바퀴살과 몸체를 표현했다. 페달과 지지대까지 자세하게 표현하여 진짜 탈 수 있는 자전거처럼 보인다.



페달이 없어서 어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페달이 없으니 더 자유롭게 달리는 것 같이 보인다. 자전거 안장 뒤로 하트가 달려있어 밝고 유쾌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각각의 자전거가 클래식한 자전거 모양에서부터 미니자전거까지 개성 있고 재미있게 표현되었다.



만든 자전거를 앞에 세우고 그 뒤로 앉아있는 포즈를 취해 원근법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사진을 연출하였다.

3. 결과 분석 및 기대효과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 수업은 총 5차시로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차시별 수업과정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수업은 제주어를 주제로 남원 포구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자디자인 수업이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풀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글씨를 쓰는 것에 낯설어 하고, 행어나 손에 흙이나 먹물이 묻을까봐 조심하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번 손에 먹물이 묻자, 과감하게 재료를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더욱 황당하고 참신한 도구를 찾기 위한 재료찾기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자주 쓰는 말을 소리 내어 쓰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였고,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물을 찍어내거나 잉크를 떨어트리며 개성적인 표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차시, ‘내가 디자인하는 올레 스탬프’ 수업은 점보지우개를 이용한 전각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조각도로 지우개에 홈을 새길 때는 많은 학생들이 깊이 파내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깊이 파내려고 힘을 주다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순회를 하며 올바르게 칼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조각도로 새기는 작업을 할 때에는 끊임없이 찍어보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 하도록 지도 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량 복제를 할 수 있다는 전각의 특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3차시, ‘나만의 돌하르방 만들기’수업은 제주의 수호신인 돌하르방을 재해석하여, 돌멩이로 나만의 돌하르방을 표현하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해변에서 돌멩이를 채집할 때에 운동화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왕 물에 빠진 김에 더욱 신나게 적극적으로 채집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울음을 터트리는 학생도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들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현장학습의 장점을 살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들은 채집활동을 통하여 보말, 조개껍데기, 게, 등을 관찰하기도 하였고, 돌멩이라고해서 다 같은 모양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 색깔, 모양, 무늬 등 제각각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며 보

다 자신이 원하는 모양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자신의 작품이 완성 되면 이것을 놀이로 삼아 친구와 함께 돌맹이를 늘어놓고 쌓아보며 그 안에서 조형의미를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4차시,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 수업은 전쟁, 학살 등 비극적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새기고 노란리본을 다는 수업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의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수업에 임하였다. 알뜨르 비행장 격납고에 있는 박경훈 작가의 제로센 비행기(‘애국기 매국기’)를 보며 일제강점기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몇몇 학생들이 감정에 앞서서 폭력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폭력적인 복수가 아닌 우리가 가져야 할 입장과 태도는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제시 하며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5차시, ‘꿈을 달리는 자전거’는 체험이라는 것을 형상화하여 자전거를 선제구성하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자동차로는 쉽게 가지 못하는 제주의 숨은 길과 좁은 마을길을 다니며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제주의 길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한 학생은 오르막이 계속 되는 함덕-탑동 코스에서 너무 힘이 들어 포기 하고 싶을 때, 친구들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어 버틸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했고, 이번 경험을 계기로 그 친구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제주도 완주의 꿈과 도전, 포부를 다짐하였다. 학생들은 작품을 완성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근법을 이용하여 내가 만든 자전거를 탄 것처럼 보이는 착시 사진 작업까지 이어나가 수업에 더욱 재미를 높였다.

이처럼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수업은 제주도 특유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에 흥미롭게 접근 할 수 있도록 미술만의 특징을 살린 수업을 구안 하여 학생들에게 건전한 예술 문화를 제공하였다.

날씨나 바람, 도로상황, 자전거 운전자의 체력 등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제한점도 있지만, 학생들이 서로 의지하고 협동하며 이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제주가 가진 교육적 가치를 반영하여 교실에서만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미술과 수업이 많이 진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제 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중심 교육’ 및 ‘지역사회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점에 착안하였으며 제주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 자연·문화와 자전거를 연계한 체험 중심 미술 수업을 적용하여 학습 과정안을 구상하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교육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연구하여 이를 어떤 관점으로 미술교육에 접목 시켜야 할지를 고찰하였다. 세계가 주목하고 인정하는 제주의 자연유산과 이로 인해 생겨난 독특한 제주 문화를 다섯 가지 요소로 선별하여 미술교육의 소재로 선정하였다.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제주어, 돌문화, 비극적 역사와 제주의 길 체험을 주제로 삼아 다양한 방법과 기법으로 표현활동을 하여 미술수업을 전개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자연·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제주의 자연·문화적 환경을 체험하고 관찰함으로써, 사회를 탐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이해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주제를 미술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유산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둘째, 체험학습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을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지음으로서, 학습공간을 학습자가 살고 있는 자연환경으로 확장시켰다. 책이나 사진 등 간접체험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는 체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셋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미적 감수성을 기르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제주의 바람과 햇빛, 계절에서 느껴지는 자연환경, 제주의 돌담 등 주변 환경속에 잠재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관찰하며 풍부한 감성과 심미적 태도를 기를 수 있었다. 그로 인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상상한 것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

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할 수 있었다.

넷째, 자신의 삶속에서 미술을 통한 사고와 인식이 향상되었다.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를 담론으로 하여, 자신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미술과 관련지어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제주 자연·문화 체험을 통한 미술수업이 학습자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미술 수업 방식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소재들을 통하여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폭넓은 지역교육이 가능해지고, 학습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위한 미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장소인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개발 된다면, 평면표현위주의 미술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다양한 미술의 장르를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강정효(2003),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돌베개.
- 고동호 외(2015), 「제죽말의 이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고재환(2017), 「제주어나들이」, 보고서.
- 고창훈 외(1994), 「우리땅의 의미를 찾는 제주기행」, 백산서당.
- 곽병선 외(1987),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교육과학사.
- 곽병선·김재복(1989), 「초등학교 교육과정운영론」, 배영사.
- 국립제주박물관(2009), 「유적과 유물을 통해 본 제주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 김남선(2011), 「지역사회 교육론」, 형설출판사.
- 김만근(1990), 「국민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지역화 운영의 실제」, 새교육.
- 김오진 외(1998), 「탐라지리교육연구」, 탐라지리교육연구회.
- 김유정(2011), 「제주 풍토와 무덤」, 도서출판 오디컴.
- 김은석 외(2010), 「지역과 사회과교육」,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재복(1983), 「통합교육과정의 이론과 적용」, 과학연구사.
- 김현철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호엽(2008), 「사회과교육 입문」, 교육과학사.
- 박경훈(2010), 「경술국치100년 박경훈 개인전 알뜨르에서 아시아를 보다」, 도서출판 각.
- 박찬식·김동진(2001),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도인쇄공업협동조합.
- 양영훈(2012),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평화의 섬 제주도」, 주니어 김영사.
- 오승훈(2015), 「제죽말의 이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왕은실(2013), 「좋아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래피」, 길벗출판사.
- 유광찬 외(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탐구」, 교육과학사.
-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한겨레신문사.
- 임주빈(2013), 「한국지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전성수(2006), 「교과교육학&미술교육학」, 한국학술정보.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의 상징」, 하나출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08), 「한눈에 알아보는 제주의 문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2010), 「올레길 문화 역사, 식생 아는 만큼 보인다」, 남도인쇄사.

제주-세계7대자연경관 백서 편찬위원회(2015),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백서」, 휴먼컬처아리랑.

제주도·제주발전연구원(2000), 「제주의 문화재 안내문안집」, 일신옵셋인쇄사.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2015), 「제주말[씨]우리글서예전」, 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최석진(2014), 「환경교육론」, 파주: 교육과학사.

최일섭(200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학술논문 및 정기간행물>

Edward G.Olsen(1954), 『School and Community』, New York: Prentice-Hall Inc.

Hillery, George A., Jr.(1968), 『Communal Organizations: A Study of Local Societ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rug, D, H., & Parker, A.(2009), 『A Journal of Critical Inquiry and Professional Learning: Telling Tales of Community, Art, Aesthetics, and Cultures.』,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Lloyd Allen Cook(1950), 『A sociological Approach to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Robert M., MacIver(1928), 『community: A sociological study』, London: Maccillan & co.

김문홍(1994), 『제주의 생태계-제주의 육상식물』,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김지영.임춘배(2015), 『제주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초등 5,6학년 미술과 교육과정 지역화연구』, 한국초등학교미술교육학회 제 2015-42호.

양창용(2014), 『Jejueo: History and Attitudes』, 세계한국학대회 제 7회 panel 26.

오세희(2012) 『교육행정의 지역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역할』, 한국 교육개발원 제

2012-4호.

탐라지리교육연구회(1998), 『탐라지리교육연구』, 탐라지리교육연구회.

<학 위 논 문>

김나연(2014),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태미술교육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경(2011),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초등학교 미술수업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은(2014), “자연체험을 통한 미술 교수·학습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진희(2009), “초등 미술과 감상수업에서 지역 문화의 이해를 위한 체험학습 방안”,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제보람(2016), “지역사회 중심의 미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기 타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201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 (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교육부(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1997-15호 (별책 1).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고시 제 2015-74호 (별책 7).

김동영(2014), 「초등학교미술 3~4지도서」, 아침나라.

김정희(2015), 「(초등학교)미술3~4」, 동아출판.

노부자(2011), 「미술:초등학교 5~6」, 두산동아.

노영자(2014), 「초등학교미술 3~4지도서」, 교학사.

류재만(2015), 「초등학교 미술 3~4지도서」, 천재교육.

박은덕(2014), 「초등학교 미술 3~4 교사용지도서」, 비상교육.

안금희(2017), 「(초등학교)미술5~6지도서」, 천재교과서.

<ABSTRACT>

A Method of Art Education through Jeju Natural and Culture Experience.

-Focused on the high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Hye-Ji Lee

Department of Art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Myung Kwack

Today's art education emphasizes curriculum that is experience-centered and locally tailored as a way to promote the concept of 'art for life.' Being encouraged to learn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and their surroundings, the learners are intrigued and motivated more easily because they can readily apply what they learn to their daily lives. To promote 'art for life,' the learners should first be educated in the culture of their local community. For learners to have 'art for life', education of local culture should be preceded, and experiential learning makes it more effective by allowing them to have contact with nature and objects around themselves.

This study provided an opportunity for upper grade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s on Jeju Island to experience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through bike rides. It was designed to help apply lessons learned to future curriculum and achieve whole person education for the student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art education provided in the local context, existing literature on the value of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cultural heritage was investigated based on community education theories. Various art expression activities that combined experiential learning and art curriculum were conducted as well.

The study was expected to produce the following educational benefits.

First, the students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Jeju's nature and culture.

Second, they will be able to become more interested in and attracted to their local community.

Third, they will be able to develop aesthetic sensibility and express themselves more creatively through hands-on experience.

Fourth, they will be able to improve thinking and awareness of art in the context of their lives.

To meet these purposes, five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the following sequence: 1) writing calligraphy in Jeju dialect; 2) inscribing an Olle (local foot path) stamp by one's own design; 3) modeling a new-generation Dol Hareubang (indigenous rock statue); 4) appreciating things fading from memories; and 5) making a bicycle with wires.

Classes conducted as part of the study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while riding bicycles along local paths, the students came to experience, watch and understand Jeju's nature and culture.

Second, by linking their classroom lessons to their daily lives, the students expanded their space for learning into their local community.

Third, the students developed rich sensibility and aesthetic appreciation of Jeju's natural environment and surroundings represented by such elements as winds, sunlight and seasonal changes.

Fourth, the study presented a way forward for art education by encouraging the students to voluntari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designed to help them investigate and find solutions to social issues through art in their daily context.

Continued research and development to help apply various materials of educational value in Jeju to the curriculum for art education through natural and cultural experience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students'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ir learning and allow them to experience broader genres of art beyond classroom activity that only focuses on plane expres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ontributes to developing curriculum that focuses on community-based experiential activity and promoting the 'art-for-life' concept for learners of art.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2018. 8

<부록>

<<제주어로 쓰는 캘리그래피 유인물 I - 표준어와 제주어>>

Q.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단어를 채우세요.









감자(지슬) / 채소(송키) / 병아리(빙애기) / 머리카락(허운데기)

튀끼광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

어느날 숲 밭디서 출람생이 토끼가
인역이 돌음박질 잘 해진덴 허멍 거북이신디 고라신디,
"거북이, 느 나영 돌음박질 혼번 해볼타?"
"기여 경 허주."
구추룩행 두명이서 돌음박질 허기로 허연게.
토끼 벗덜이영 거북이 벗덜이영 다들 모다정 응원 했쥬게.
"토끼 도르라, 토끼 도르라~!!"
"거북이 도르라, 거북이 도르라~!!"
여피 이신 사슴이 "준비~ 초렛~ 땅!!"
해주난 둘이가 시작해연.
토끼 강충강충 도르고 거북이 영금영금 기어간게.
혼자 출람생이 추룩 허던 토끼가 말긔는디
"거북이 고자도록 안왓시냐?"
허멍 산도룩헌 낭 강알 아래서 쉬영 가켄 허연.
경허당 인역도 모르게 온긔 좀들어분거 아니....
똥 출출 흘리멍 기영온 거북이
좀자는 토끼도 지나쳐그네 산꼭대기 꼬정 올라가부런게.
경행 깃발 들러네
"아고게~ 나가 이겨부렸져. 잘도 지꺼지다."
그 소리에 추물락헌 토끼 일어난 보난 인역이 저분거 아니.
계난 누가 좀 자랜.
"나 무시것터랜 좀 자저시니게... 아이고 어멍..."
어멍 불르민 무시거 달라져.
인역이 좀 자분 걸.
경허멍 토끼 후회했덴 해라.

- 출처 : <http://cafe.daum.net/jejuspeech/J7BJ/9>

<<체험활동 과정>>



▲ 출발하기 전, 행선지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모습과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지도를 보며, 자전거로 다녀온 곳을 자신이 만든 지우개 도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 파란색 선으로 표시 되어있는 자전거 도로(제주 환상 자전거길)를 달리고 있다. 바닥에는 현재 위치가 안내 되어 행선지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전거 도로와 차도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줄을 맞추고 간격을 두어 안전하게 질서를 지키며 가고 있다.



▲ 차가 다니지 못하는 좁은 길을 달리는 모습이다.



▲ 주행을 하다 잠시 쉬기 위해 월정해변에 들렀을 때, 모래사장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있었다. 환경보전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주워 담았다.



▲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길을 건넌다.



▲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힘이 들어 자전거를 끌고 오는 모습이다.



▲ 바닷가에서 돌에 붙은 보말을 줍기도 하고, 게, 성게, 물고기 등 해양생물들을 잡아보며 관찰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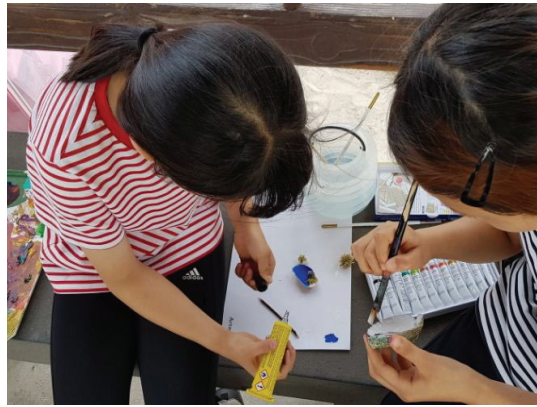


▲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제주어 캘리그래피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 모델이 멋진 포즈도 취하고, 그 모습을 보며 드로잉을 하고 있다.



▲ 돌멩이나 조개껍데기 등을 채집하고, 크레파스나 물감 등 원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함께 감상을 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모래사장에서 모래찜질을 하는 모습과, 모래성을 쌓아 조개껍데기로 장식한 모습이다.



▲ 해변이나 들판에서 다양한 크기의 돌을 주워, 돌탑을 쌓는 모습이다.



▲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잠시 쉬고 있다.

▲ 제주 환상 자전거길을 따라 235km를 완주한 후 기뻐하고 있다.